



우수작

아름다워서 사라지는 것들

<MBC 스페셜> <가리봉동의 꿈>을 중심으로

장혜숙

다큐멘터리는 따뜻한 것?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려내고자 한다’는 KBS <다큐멘터리 3일>(이하 <다큐 3일>)의 프로그램 기획 방향을 보더라도, 한국형 다큐멘터리의 특징점은 이 ‘따스한 시선’에 있는 듯하다. 시사 다큐멘터리 부문에서는 큰 성공을 이뤘던 <인간극장>의 기본적인 시선이 그대로 <다큐 3일>로 계승되고 있는 셈이다. 프로그램의 입구가 전자는 특정 인물이 되고, 후자는 특정 시간 속의 공간이 된다는 차이는 있지만, ‘따스한 시선’이라는 기본 정조는 변함이 없다. 온정 넘치는 시선은 어느새 한국형 다큐멘터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덕목으로도 느껴진다. MBC <휴먼다큐 사랑>에서도 비슷한 시선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는 대상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거나 온기

가 부여되어야 하는 점은 분명하다. 새삼스럽게 그 시선의 온도를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선을 기록하고 재구성하는 시점에서 일어나는 미화(美化)다. <MBC 스페셜>은 위의 세 프로그램과는 다른 개별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다루는 대상이 겹칠 때, 이전 프로그램이 택한 시선의 온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동시에, 과도한 온기 부여를 하거나 끝내 미화라는 왜곡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이 우려될 때가 많았다. 그 우려에서 출발해본다.

열린 방 안에 스스로 갇히다

<MBC 스페셜>은 매회 다른 형식과 다른 주제로 제작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이 때문에 일관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매회의 작품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은 비평의 애로사항인 동시에 <MBC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점이다. <다큐 3일>이 설정이 분명한 동시에 제약도 분명한 것처럼, 현재 부정형(不定形)의 <MBC 스페셜>이 변모해나갈 열린 테두리도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설정이 분명하지 않은 단계에서 조금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다. 이 프로그램과 저 프로그램 사이의 무게 균형을 잡기 이전에 이쪽저쪽으로 흔들리며 진행될 때, 시청자는 혼란을 느낀다. 이 장면은 분명 <다큐 3일>에서 본 것 같은데, 저 장면은 <휴먼다큐 사랑>인 줄 알았는데, 같은 반응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부정형의 프로그램은 고유의 시그니처를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숙제처럼 짊어지게 된다. 이 문제는 프로그램의 존폐 유무, 운명 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중차대하다.

<MBC 스페셜> <가리봉동의 꿈>(2011. 8. 26 방영)을 보고 <다큐 3일>의 <환.영.라이(歡迎來) 가리봉 - 중국동포거리 3일>(2010. 8. 29 방영)

을 떠올리지 않기란 어렵다. 두 회 모두 8월 하반기에 방영되었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에 방영되어 심지어 가리봉동 거주민의 생활 양태마저 동일하게 보였다. 쪽방에서 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 가리봉 시장의 중국음식점 사람들이 뜨거운 기름 앞에서 쉴 새 없이 땀을 흘리는 모습 등. 삶의 양태 자체가 변화하지 않았으니 이 기시감은 근거를 갖는 셈이다. 현장이, 대상이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동일한 모습을 다시 보는 것은 당연한 것. 그러나 문제는 모습이 변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작(?)인 <다큐 3일>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니 <나는 9급 공무원이 되고 싶다>(2011. 7. 1 방영)에서 <다큐 3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고시촌>(2011. 2. 27 방영)이 쉽게 겹쳐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고시원 → 고시학원 → 집(고향)을 떠난 고시생 → 집(고향)에서 응원하는 부모’를 차례로 담고, 작금의 고시열풍에 대한 피상적인 묘사가 내레이션을 채운다. (“1,500명을 뽑는데 15만 명이 몰렸다.” “준비에만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든다네요.”) 어디에선가 본 장면을 다시 그대로 보는 느낌과 새로울 것 없는 취재의 내용은 분명 <MBC 스페셜>의 다음과 같은 기획의도에서 다소 동떨어져 보이게 된다. “<MBC 스페셜>은 인간, 자연 그리고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깊이 있는 해석 대신 계속되는 기시감은 단순히 대상이 같은 데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 코끼리 다리를 같은 각도와 같은 조도로만 바라보고자 하는 데서 문제 역시 생겨난다. ‘따스한 시선’이, 따스하지 않은 현실이나 사회의 차가운 특정 부분을 삭제하거나 모르는 척하는 방식으로 얻어진다면 그 시선은 그대로 함정이 된다. <MBC 스페셜> 안의 가리봉동은 더럽지도 냄새나지도 않고, 사람들의 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비춰졌으나, 정작

나는 화면 안의 공간이 가리봉동인지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가리봉동 인근 지역에서 수년째 살고 있음에도, 현실 공간의 가리봉동과 말끔하게 청소한 듯한 화면 속 가리봉동을 다른 공간으로 보았던 것이다. “가난은 냄새만으로도 두렵다”는 문장을 떠올려보자면, 프로그램 속 가리봉동은 그 냄새를 탈취시킨 공간이 된다. <가리봉동의 꿈>은 꿈에서나 있을 법한 ‘꿈의 가리봉동’이었다.

정형화된 미화의 오류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현장성이다. 현장의 생생함을 드러내 핏진성을 지켜내는 대신 따스함을 위해 ‘미화’를 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좋은 다큐멘터리를 선별하고 대중에게 접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EBS 국제 다큐 영화제(이하 EDIF)와 비교한다면 좀 더 분명해진다. EDIF를 향한 찬사에는 세계 각지의 현장을 선사하는 다채로움에 대한 만족감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출품작이 세계 각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다양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만일 “어디에도 삶과 희로애락은 있다”는 경구가 ‘따스한 시선’과 함께 출품작들의 제작에도 적용되었다면, 시청자는 결국 세계 도처에서 날아온 기사감의 묶음만을 마주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눈물이 중국 소수민족 학교 학생의 눈물과 달라야 할 까닭은 무엇인가. “어디에도 삶과 희로애락은 있”으니, 따스한 시선 속에서 모두가 힘들게 살아간다는 지당한 사실만 확인하면 그만인 것일까. 따스한 시선이라는 필터가 도처에 배치되면 모든 삶의 편차와 희로애락의 굴곡은 오히려 평평하고 부드러워진다.

가리봉동은 가리봉동의 현재 모습일 때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법. <가리봉동의 꿈>은 미회를 통해 대상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마저 차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큐멘터리에서 내레이션의 내용은 제작진의 대상에 대한 이해의 방향, 해석의 틀을 드러내고, 그 틀은 다시 시청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아래와 같은 현재 긍정적 표현들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인지, 현재를 아름답게 비취 ‘문제 없음’으로 보이게 하는지 숙고가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1. (내레이션) 도대체 한 집에 방이 몇 개나 있는 것일까요. 40평에 스무개가 되는 방. 가리봉동에는 이런 셋집들이 약 500채나 있습니다. 가리봉동 쪽방은 그 숫자만큼이나 그 어디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외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대근무가 기본이던 시절, 밤낮으로 공장을 오가던 여공들은 사방으로 뚫린 계단 덕분에 주인집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20~30가구에 화장실은 보통 2개. 지금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2. (내레이션) 비록 몸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방이지만 돈 벌러 온 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안식처입니다.

구로공단 근로자들이 거주하던 거주지에 중국교포가 자리한다는 것은 결국 1970년대 시절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40년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세월만큼 더 노후되어 더욱 열악해진 채로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이 가리봉동 쪽방이나 벌집방 등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은 그

열악함이 근절되거나 적어도 개선되는 방향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쪽방 주민의 눈물어린 과거사를 반복적으로 담는 대신, 가령 어째서 최소 주거면적이라는 법적 기준이 쪽방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그 이유와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다룰 수 있는 것 아닐까? 공간이 사람을 침식해가는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 지금까지 버티게 해주는 고마운 곳으로만 그려낸다면, 그 시선이 놓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공간의 긍정적인 역할을 의심하지 않고도 미화 이상의 것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열악하디열악한 환경이 아니고서도 그들을 포용할 공간을 구상해내도록 촉구할 수는 없었을까? 이것은 어찌면 ‘따스한 시선’을 빙자한 미화라는 오래된 관습을 버리는 데서 가능해질지 모른다.

내레이션의 내용만큼 현장을 시각화하는 촬영도구도 시선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가리봉동을 비추는 카메라는 더없이 따뜻하고 색감이 고운 화면을 선사한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흔히 ‘오두막’이라고 불리는 캐논 EOS Mark 2로 촬영된 화면은 내가 알던 가리봉동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밝게 지워나간다. 심지어 살아 있는 노동자들의 관이라고 불릴 만한 벌집방을 비출 때는, 좁은 공간에서도 심도를 깊게 살려주는 이 카메라의 특성상, 더 넓고 깨끗한 환경으로 탈바꿈한다. 저만한 방이 보증금도 없이 월세 10만 원이라면 살 만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미화된 시선 앞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실제로 아름다워져야 하는 것은 가리봉동이라는 실제 공간이지, 화면 속 가리봉동이 아닌 것이다.

다시, 부정형의 시선에서

현실의 무삭제판을 마주하지 않은 채, 깨끗하게 정돈된 화면 안에서,

이미 닳을 대로 닳은 체계화된 감정선을 자극하는 것. 이것이 다큐멘터리가 지향할 바는 아닐 것이다. ‘평범한 삶이 그곳에도 있다’, ‘평범한 행복이 그곳에도 있다’는 명제를 몰라서가 아니다. 그 공간은 평범할 수 없음에도 평범하게 보려고 하고, 평범한 행복으로 불러들일 때, 평균 그 이하에 위치한 삶의 편차는 사라지게 된다.

눈물과 고생담, 그리고 결국 “복된 삶이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1970년대 구로공단 여공이었던 초로의 여가분이 어렵게 꺼냈을 삶에 대한 긍정은 이 미화된 현실, 결국 현실을 저버리는 화면 속 낮은 공간 앞에서 오히려 순수성을 빼앗긴다. 그곳은 충분히 살 만한 공간이고, 사서도 한다는 ‘짧어 고생’이 펼쳐지는 당연한 현재의 공간이므로.

이 미화로 이루어지는 부드럽고 어그러진 형태의 모욕 대신, 다큐멘터리의 현장성을 획득하면서 동시에 <MBC 스페셜>의 생존 지점을 찾는 방법은 기존 한국형 다큐멘터리에서 공식처럼 반복하고 있는 ‘따스한 시선’과 같은 접근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현장은 반드시 아름답고 따뜻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해 현장을 편집하는 대신, 무색무취한 시선을 상기한다면 어떨까. 그런 시선으로 무삭제판 현실을 용감하게 마주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시감만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MBC 스페셜>의 스페셜한 지점은 그 시선에서 생겨나게 될지 모른다.